



(서울의대 기생충학, 평가위원장)

---

(서울의대 기생충학, 평가위원장)

---

우리 나라의 의학계는 해마다 만여 편의 논문을 생산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다. 학문의 세계에서 논문 발표는 생존을 위한 기본이기에 논문발표를 위한 노력은 실로 처절하다. 특히 가능하면 SCI에 등재되는 학술지에, 그것도 되도록 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발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모든 국내 학회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어 이들 학술지에도 논문을 투고하여야 하는 의무감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국내 학술지에도 논문을 내면서 외국 학술지에도 논문을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우선 논문을 국문으로 만들어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고 같은 논문을 영문으로 외국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흔하였고 능력 있는 연구자로 행세할 수 있는 아주 잘 하는 정책으로 자랑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같은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실감하게 한다. 즉 KoreaMed 등의 국내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국내 문헌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제 학술지 논문은 물론 SCI나 PubMed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논문이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는 경우 이는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하여 중복출판이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해당 논문의 원전에 대한 다툼이 학술지 간에 생기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 우선권을 먼저 출간된 논문이 갖는다는 선취권 원칙이 있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

자가 아니라 학술지가 가지므로 먼저 출간한 학술지가 저작권을 가진 논문을 나중에 발표한 학술지는 학술 논문의 정보제공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는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는 생의학 학술논문의 통일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만들어 의학논문의 작성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통일양식을 국내에서 번역 출간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 양식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논문의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을 금지하고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의 요건을 명시하여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원저일 것을 요구하며,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어느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다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는 경우가 중복출판이고 이와 구분하여 이차출판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1) 일차와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은 일차출판 논문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출판된 학술지의 선취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이차출판은 축약판으로 충분하다.
- 4) 이차출판은 일차출판의 자료와 해석을 가감 없이 성실하게 기술한다.
- 5) 이차출판될 논문의 표지에 이 논문이 이차출판임을 명기하고 원전을 밝혀서 독자, 상호심의자, 색인자 등이 알도록 한다.

그러므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출판은 이차출판이 아니라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저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있음을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무시하고 중복출판을 하게 되면 학문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된다.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학문세계에서 부과하는 벌을 받게 되고 자칫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쉽다. 중복출판에서 문제점은 일차로 출판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 당한 것과 이차로 출판한 학술지는 원전이 따로 있는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가 되어 정보원으로서의 신용도가 훼손되는 것이다. 모든 학술지가 논문을 투고할 때에 ‘이 논문을 타지에 게재한 적이 없고

게재거부되지 않는 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러한 거짓말에 이차로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이 속아서 선취권과 저작권이 다른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알지 못하고 출판하였다면 아무리 독자층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고 하여도 학술지와 독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사전 상호심의가 부실하였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거짓말에 속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게재 승인하였다면 원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논문을 출판하여 학술지의 격이 떨어지고 편집권을 포기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연히 저자도 진실이 생명인 과학 학문의 세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논문을 출판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그 저자의 이름이 있는 논문은 그것을 사유로 하여 출판거부도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일부 학자들이 관행처럼 국내 학술지와 외국 학술지에 이차출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같은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모두 온라인으로 웬만한 국내 학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출판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의 실제적인 문제는 먼저 발표한 학술지가 국내에서 국문으로 발행되어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학술지이고 나중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학술지는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내 학술지는 아예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즉 저자들 스스로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존재 뿐 아니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모두에서 물론 외국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에 먼저 발행된 국내 논문을 인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전을 밝히지 않는다.

과거에 어떠한 관행이 통용되었건 이제 우리 의학계도 연구의 내용은 물론이고 연구수행의 윤리성, 논문작성의 전문성과 윤리성, 그리고 투고에 이르기까지 국제수준의 규격(Global Standard)에 맞추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1997)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rch Int Med 126, 36-47.

임정기. 생의학 학술논문의 통일양식.